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대상 확대

초음파·MRI 적정비용 알수 있다

총 337개 진료 홈페이지서 공개

도수치료·난임치료 시술도 포함

초음파

MRI /유토이미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진료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을 공개대상에 추가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의료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란 이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은 병·의원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6월 심평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로 파악됐다.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액수인 최빈금액(가장 흔히 받는 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별로 3.3~8.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000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원에서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치매 예방백신, '벌침'서 비밀 찾다

경희대한의학과 등 공동연구팀

알츠하이머 항원 주사 백신 연구

면역력 높이는 'PLA2' 성분 주목

기존 백신 부작용 나타나지 않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성분을 봉독(벌침)에서 찾아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가천대·한국원자력의학원 공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치매 백신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봉독(벌침) 성분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독성을 가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과도하게 쌓이거나 뇌세포의 골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우 단백질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첫 증상으로는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는 등의 기억장애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에 문제가 생기는 언어장애, 방향감각이 떨어지는 시공간능력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치매백신은 알츠하이머병의 항원(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을 주사해 면역시스템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 생산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몸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인지기능 감퇴와 병리적 손상을 늦추는 게 이 백신의 목표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의 6%에서 뇌 속 염증이 유발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연구팀은 봉독침 주사 때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PLA2'라는 성분에 주목했다. PLA2는 한때 봉침 부작용의 원인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오히려 다양한 효능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질환을 일으킨 실험 쥐를 대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항원과 봉독의 PLA2 성분을 함께 주사하고 모리스 수중미로(Morris water maze) 검사를 통해 인지능력 및 기억력을 측정했다. 대조군은 베타 펩타이드 항원만 주사한 쥐들이었다.

이 실험 결과 PLA2를 병행 주사한 쥐들은 아밀로이드 백신만 주사한 그룹에 견줘 인지기능이 정상 쥐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증가했다. 또 백신요법과 PLA2를 함께 처리한 쥐는 뇌 해마 부위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이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밀로이드 백신요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뇌 염증이 PLA2 처리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보고했다.

연구 책임자인 배현수 교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뇌 활동성을 측정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에서도 아밀로이드베타 백신과 PLA2를 함께 투여한 그룹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뇌 활동이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최초 10兆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규모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대비 생산은 9.3%, 수출은 11.2%, 고용은 6.5%가 각각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주요 특징은 ▲바이오의약분야 성장세 지속 ▲바이오서비스분야 수출 대폭 증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기업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0조126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중 바이오의약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3조8501억원으로 바이오산업 총생산의 38%를 차지했으며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중 생산규모 1위를 유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투인원 제품으로 일석이조? 화장품도 '가심비'로 공략!

투쿨포스쿨의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뤼미네즈 바니쉬'. /투쿨포스쿨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제품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얻을 수 있는 '투인원(2 in 1)' 화장품이 다시금 인기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춰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까지 챙길 수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들이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실용만점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미니멀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제품 구매시 간편함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은 제품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로션, 에센스를 함께 담아내거나 베이스와 컨실러를 담아낸 팩트, 립프라이머와 립스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립 제품 등이 출시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투쿨포스쿨은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뤼미네즈 바니쉬'를 선보였다. 피부에 윤기와 볼륨, 톤업 글로잉 효과를 선사해 어느 각도에서나 빛나는 광채 스킨을 완성할 수 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적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3가지 글로우 밤이 하나에 담겨있다. 투인원을 넘어 쓰리인원(3 in 1)인 셈이다.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 생기를 더해주는 핑크빛의 '글로우 핑크'는 하이라이팅 효과를 준다. 또, 미세한 펄을 함유한 '클리어 스파클'은 촉촉한 윤기를 선사하는 광채 코팅을, 연보랏빛의 '유니콘 블루'는 각도에 따라 영롱한 빛을 발산해 스트로빙 효과를 제공한다.

에이치투메디의 '샤이니 2 in 1 매직 버블 클렌징 마스크'는 클렌징과 마스크,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노폐물이 많은 날은 마이크로 버블이 케어해 주고, 노폐물이 적은 날은 수분케어를 해주는 똑똑한 클렌징 마스크 제품이다. ph5~6.5의 순한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 밸런스를 관리해줘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케어할 수 있어 피부 톤을 밝게 해주며, 모공 케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기초나 색조 등 일반적인 화장품을 넘어 뷰티 디바이스 업체도 가심비를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코리아테크가 대표적이다.

코리아테크는 멀티 스킨케어 디바이스 '카사업(CAXA UP)'을 선보였다. 최근 '셀프 홈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의 디바이스로 피부 바깥부터 안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주목 받는다.

코리아테크 마케팅 담당자는 "카사업은 피부톤 및 피부결 개선부터 턱, 눈가 주름까지 관리가 가능한 멀티 디바이스로, 홈케어만으로도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사업은 두 가지 전류가 흐르며 괄사 형태를 띤다. 미세전류가 발생하는 오목한 부분을 사용하면 늘어지기 쉬운 턱선과 팔자·눈가 주름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준다. 길쭉한 단자를 이용하면 단자에서 발생하는 이온전류는 유효 성분을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전달해 속탄력과 겉탄력을 도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코리아테크의 '카사업'. /코리아테크

또한,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귀 뒤 아랫부분의 림프절을 마사지해 몸속 노폐물을 먼저 녹여주면 얼굴 부기를 완화해주고 효과를 높여준다. 아울러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카사업 세럼은 비타민C 유도체를 주요 성분으로 한다. 세럼을 얼굴에 도포한 후 카사업을 사용하면 비타민C가 진피층까지 흡수돼 칙칙한 피부톤을 밝히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코리아테크는 앞서 페이스 라인과 바디 라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리파 4캐럿 레이(ReFa 4CARAT RAY)'로도 일찌감치 주목 받은 바 있다.

이 제품은 전문 에스테티션의 손기술인 '잡아 밀기' 동작을 4개의 롤러볼로 재현해 혈류와 림프의 순환을 효율적으로 촉진시켜준다. 가로, 세로, 면 어떤 방향이든 2개 부위를 동시에 자유자재로 잡아 밀어주는 '더블업 니딩' 기술이 적용돼 심도 있는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